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세계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증권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율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주식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시가총액 약 2조원 이상의 전세계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의 주식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이익/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발굴을 위해 애널리스트들의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자료에 기반을 두는 상향식(Bottom-up)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산군 별 리스크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
산배분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관리 및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66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50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273억 원

펀드유형 채권혼합형, 모자형, 종류형
- 채권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주식모투자신탁 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7년 05월 02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5년 06월 29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24년 09월 27일

벤치마크 MSCI AC World Local (T-1)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 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HSBC(수탁사)

월 중 환헤지 비중 **90.7%**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7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8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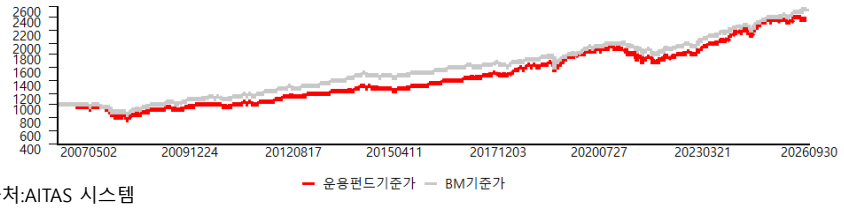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13%	-1.17%	5.12%	1.40%	13.19%	30.99%	25.46%	137.94%
클래스 C-P(퇴직연금)	-0.23%	-1.48%	4.50%	0.19%	10.52%	26.40%	18.19%	61.42%
클래스 C-P(퇴직연금)E	-0.20%	-1.39%	4.67%	0.53%	11.27%	27.68%	20.21%	59.34%
클래스 C-P2(연금저축)E	-0.21%	-1.40%	4.66%	0.50%	11.19%	-	-	10.77%
벤치마크	-0.42%	0.74%	6.32%	4.92%	12.97%	29.32%	27.79%	151.0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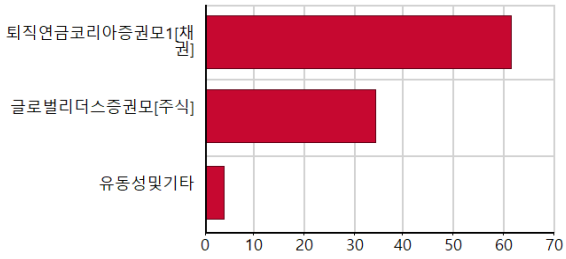


출처: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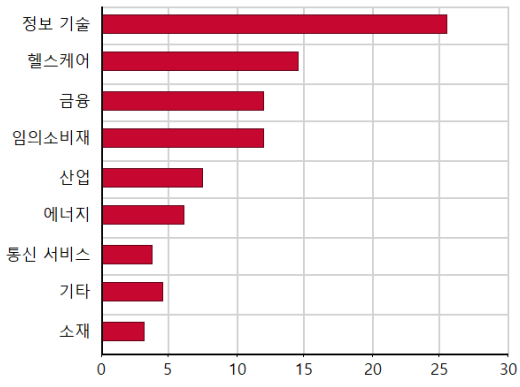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61.7
2	글로벌리더스증권모[주식]	34.2
3	유동성및기타	4.1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정보 기술	25.5
2	헬스케어	14.7
3	금융	12.1
4	임의소비재	12.0
5	산업	7.6
6	에너지	6.2
7	통신 서비스	3.8
8	기타	3.3
9	소재	3.3
10	기타	1.3



상위 보유 종목

종목명(9월말 기준, 주식모투자신탁 주식비중)	비중(%)
NVIDIA Corp	5.9
Eli Lilly & Co	5.3
Microsoft Corp	4.3
Amazon.com Inc	4.2
Alphabet Inc	3.8

종목명(9월말 기준, 채권모투자신탁 채권비중)	비중(%)
국고03500-2906(26-5)	10.4
국고채권03625-2809(26-7)	9.5
삼성증권25-2	7.7
산금26신이0106-0721-1	4.8
국고채권04250-3606(26-6)	4.8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디딤글로벌리더스40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26년 09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2% (판매 0.69%)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0.86%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0.94% (판매 0.43%)

(공통사항)

운용 0.45%, 신탁 0.0475%, 사무관리 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글로벌 증시는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별 차별화가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월 후반 AI 및 반도체 관련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S&P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AMD, 인텔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강세가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가 및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 증시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영국 증시도 하락했으나 파운드화 약세와 원자재 관련 업종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제한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견조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했으며, 한국과 대만도 월중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내수 부진 우려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민감주 약세와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식모투자신탁은 종목선택 효과가 상대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 업종배분 효과는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IT가 성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경기소비재가 성과에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했으며, 금융, 에너지 및 산업재 업종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성과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대만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가 가장 부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및 영국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9월 채권시장은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 우려가 맞물리며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월 초에는 2027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재정 확대 경계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졌으나, 연준 인사의 디스인플레이션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고채 금리도 일시적으로 반락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리가 재차 상승하자 국내 금리 역시 상승세를 재개하였습니다. 월 중순에는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며 9월 FOMC 금리 인상 기대가 강화된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WTI가 배럴당 105달러를 상회한 데 이어 ECB와 FOMC, 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단기물을 중심으로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월 후반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휴를 앞둔 캐리 수요로 금리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추석 연휴 중 주요국 금리 급등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월말 국고채 금리는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17.5bp 상승한 4.015%, 10년 금리는 10.5bp 상승한 4.415%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향후 기업 이익 성장세가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업종 전반의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성장 동력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연결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헬스케어 업종의 실적 전망도 개선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견조한 이익 성장과 산업 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금리 상승과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나 인공지능 관련 투자 둔화는 성장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거시경제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하는 가운데, 벤치마크 비중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별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서 투자 기회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종 및 국가별 분산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확신을 가진 우량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위험조정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채권시장은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3.50% 수준까지의 인상 경로는 시장금리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대외 긴축 압력과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여건이 재차 악화될 경우 Terminal Rate가 3.7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금리 안정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AI 투자 사이클을 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력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빠르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국제유가 안정과 함께 최근 높아진 추가 긴축 기대가 완화될 경우 가파르게 상승했던 글로벌 금리의 되돌림이 나타나며 국내 금리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축소된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발행 축소 가능성도 열려 있어 연말 공급 부담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10월 국고채 금리는 9월 급등 이후 일부 되돌림 여지가 있으나, Termin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국제유가와 대내외 통화정책 기대, 글로벌 금리 흐름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75~4.15%, 국고채 10년 4.25~4.65%의 금리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크레딧 시장은 높은 절대금리에 따른 캐리 매력이 투자수요를 지지하고 있으나, 대내외 추가 긴축 경계와 국고채 금리 변동성으로 투자심리 개선은 제한될 전망입니다. 9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크레딧 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가 제한된 만큼 높은 절대금리에 대한 기관의 투자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4분기 대규모 만기 도래와 조달 수요로 은행채 발행 경계가 이어지고, 공사채 역시 공공기관 재무계획과 정책성 자금 조달에 따른 공급 부담이 상대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 수신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경우 시장성 조달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 상위등급의 공급 부담이 일방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발행 규모와 시장 소화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여전채와 회사채는 높은 절대금리와 기관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10월 크레딧 시장은 완만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섹터별 발행 부담과 수요 여건에 따른 차별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수/국고 3y Spread 30~40bp, 은행/국고 3y Spread 32~42bp, 회사AA-/국고 3y Spread 68~78bp, 여전AA-/국고 3y Spread 62~72bp를 전망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